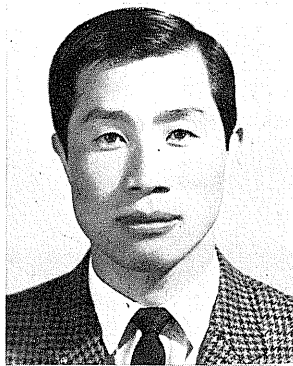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5/2	박소영	21	여	대구	//	김귀련	18	여	동부	//	송운현	22	남	대전
//	김선열	17	남	대구	//	김최용	24	남	영등포	7/4	송훈철	30	남	대전
//	김남희	15	여	대구	//	정순진	36	여	영등포	//	이필섭	18	남	대전
//	최경수	19	여	대구	//	송근배	22	남	영등포	//	이최정	26	여	대전
5/23	양승근	17	남	산주	//	박운숙	23	여	농번	//	김이진	24	여	대전
5/30	양승자	21	여	광주	//	한영팔	17	여	농번	//	이이진	18	여	대전
//	김정래	19	여	광주	//	권영자	46	남	성북	//	이이정	30	여	대전
//	김기영	18	여	광주	//	최인자	14	여	성북	//	이박혜	8	여	대전
//	김기석	21	남	광주	//	이화옥	15	여	성북	//	박창석	31	남	대전
//	강기순	22	여	군산	//	강성숙	10	여	성북	//	노후숙	19	여	대전
//	고성용	16	남	군산	//	최혜연	8	여	성북	//	김수경	51	남	부산
6/1	방요원	20	남	진주	//	임양희	26	여	동대구	//	김임자	45	여	부산
6/3	김찬일	16	남	진해	//	오정호	22	남	동대구	//	이윤영	9	여	부산
//	김보영	18	여	진해	6/20	송수란	17	여	동대구	//	이정진	19	여	부산
6/6	김보현	17	여	목포	//	이덕봉	71	여	동대구	//	이정숙	12	여	부산
//	김시찬	21	남	대전	//	한경희	19	여	동대구	//	김일동	18	남	부산
//	이진기	18	남	대전	//	문장식	22	남	동대구	//	양구자	26	남	부산
6/13	함석관	16	남	청운	6/27	김은중	34	남	광주	7/11	황영현	30	남	춘천
//	유병청	18	남	삼청	//	임난순	37	여	광주	//	김연숙	23	여	춘천
//	양봉규	25	남	삼청	//	고홍철	11	남	광주	//	김순재	15	여	춘천
//	정봉동	19	남	삼천	//	고영자	8	여	광주	//	김송순	17	여	춘천
//	배지수	26	남	인천	//	이승희	18	여	광주	//	김영숙	13	여	춘천
//	손지영	32	남	인천	//	이정심	36	여	광주	//	김영신	15	여	춘천
//	정행은	25	여	인천	//	김종순	21	여	마산	//	김진오	15	여	춘천
//	최길아	30	남	동부	//	정승권	21	여	마산	//	송희일	15	여	춘천
//	소미라	25	여	동부	//	조승용	17	남	마산	//	오성성	30	남	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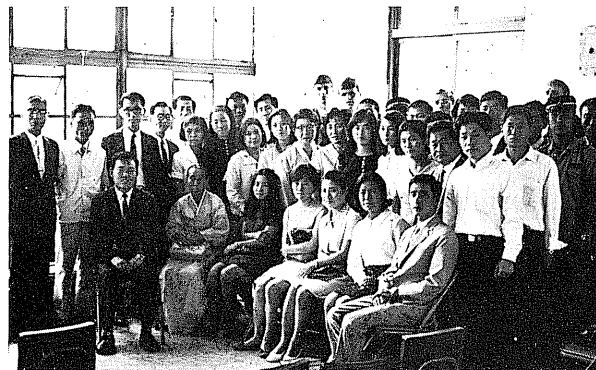
86명



김 태복 형제 광주지부 지부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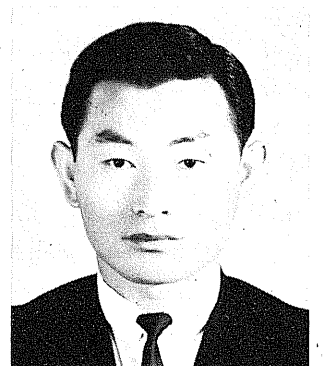
지난 5월 24일 광주의 성도들은 지부장으로 김 태복 형제를 지지하였다.

“기관사 혼자서는 기관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회원들의 협력을 다짐한 그는 김 영일, 박 영만 형제를 보좌와 서기로 임명하였다.



목표지역 - 지부로 승격

1969년 10월 1일 처음으로 목표에 받을 받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난 6월 14일 지부로 승격하도록 장준의 발전을 하고 있다. 35명의 침례 회원을 갖고 있는 목표지부는 모든 보조 조직을 갖추고서 복음을 그 지역에 전파하며 젊은이에게 건전한 활동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부로 승격되던 날 선교부장단의 이 호남 형제, 호남 지방부장 이재수 형제를 모신 가운데 96명이 참석하여 지부장으로 낼슨 장로 그의 보좌와 서기에 이 범태, 기 호진, 윤화중 형제를 지지하였다.



홍 범식 형제 전주지부 지부장에

지난 5월 31일 홍 범식 형제는 전주 지부장에 부름을 받았다. 지방부장 제 1 보좌였던 그는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 이곳이야말로 교회를 알려야 할 곳”이라며 협조를 다짐했다. 그는 홍 성대 형제를 서기에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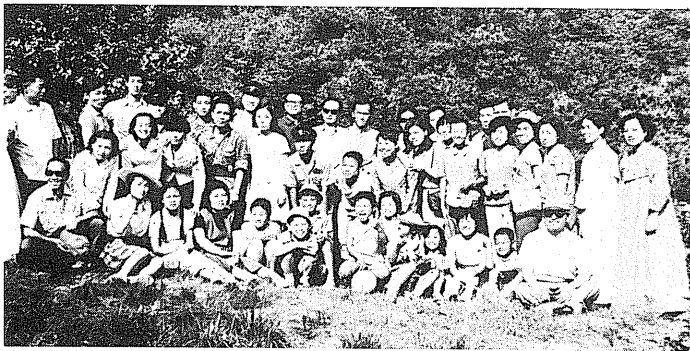


김 양옥 자매 18명을 회원으로

광주지부 소속의 김 양옥 자매(사진의 중앙)는 1969년 3월 29일 침례를 받은 이후 18명을 회원으로, 4명을 구도자로 인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직장 동료로부터 교회를 소개 받은 그는,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에서 강한 신앙을 배웠다면서 “인도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역원으로 꾸준할 때 특히 그들의 생활에서 변화를 볼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본다.”고 했다. 그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간호학교 조교수로 있다. (김 자매와 인도한 회원들)



전주지부 상향회 주최의 피크닉을 6월 6일 우아동 안골에서 가졌다. 50여명이 참석한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향회役員들은 현지 답사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었다.



성북지부 6월 6일 50여명의 성도들은 서울 근교 관악산에서 상향회가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즐겼다. 또한 6월 7일 성북지부는 새로운 지부장으로 조병하 형제를 모셨으며(사진의 앞열 오른쪽끝) 장 기호, 고 천석, 여 성록 형제를 보좌와 서기로 지지하였다.

삼청지부 6월 6일 50여명의 회원이 금곡능으로 피크닉을 다녀왔다. 회원 모두가 활동 지도자인 삼청지부는 그래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졌다.



동부지부 형제들이 현지에서 점심을 준비한 동부지부의 피크닉은 6월 6일 내곡리에서 있었다. 자매들은 3층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고 한마디씩.



녹번지부 지난 6월 6일 상향회 주최의 피크닉을 송추로 다녀왔다. 자라고 있는 상향회 활동이 엿보이기도 했던 이날의 피크닉은 형제, 자매간의 사랑을 더욱 두텁게 하는 재미있는 모임이었다.

